

##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Leadership life skills을 중심으로 -

최창욱\* · 김진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갈등원인과 갈등해결유형 실태를 분석하고, 갈등해결유형 영향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청소년기 바람직한 갈등해결유형 형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을 협력유형, 회피유형, 공격유형으로 구분하고, 성, 학교급,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 leadership life skills 수준별로 청소년이 어떠한 갈등해결성향을 보이는지, 갈등해결유형의 주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청소년들은 주로 성격 차이, 학교성적·진학문제, 신체적인 차이로 인해 친구와의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갈등해결 성향은 협력유형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회피유형, 공격유형의 순이었다. 친구와의 갈등발생 빈도는 협력유형을 감소시키고 공격유형과 회피유형을 증대시켜 동일한 문제로 인한 갈등의 반복출현을 감소시키기 위한 갈등관리능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협력적 갈등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남자청소년 보다는 여자청소년, 인문고나 중학교 보다는 실업계고 청소년, 학교성적과 가정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leadership life skills과 관련된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의사소통능력, 인간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적 특성변인 보다는 leadership life skills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 바람직한 갈등해결유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청소년 갈등, 청소년 갈등해결유형, leadership life skills

---

\*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 I. 서 론

갈등(conflicts)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삶의 한 부분이다. 긍정적인 갈등해결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감소시키고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진입은 물론 성인기에 겪게 되는 갈등의 긍정적 해결을 촉진시킨다.

갈등은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행동이나 활동으로 간주되어져 왔다(Deen, 2000). 그러나 갈등과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갈등이 인관관계의 질적 수준향상과 개인의 발달 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다시 말해, 효과적인 갈등해결은 오히려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형성, 창조적인 문제해결, 조직의 응집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들을 밝혀내었다(van Slyck, Stern, & Zak-Place, 1996; Scott, 2003).

갈등이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느냐 아니면 비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달려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갈등해결능력을 학습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기이며, 청소년기에 형성된 갈등해결기술은 성인기의 갈등해결 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Alexander, 2000). 따라서,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갈등해결능력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성인기의 성공적인 갈등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conflict resolution styles)은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협력유형, 공격유형, 회피유형으로 구분된다(Alexander, 2000). 협력유형은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친구와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즉,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유형이다. 공격유형은 갈등을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력으로 해결하려 하는 유형이며, 회피유형은 갈등을 숨기고 피하려 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청소년의 갈등원천과 갈등해결유형 실태를 분석하고, 둘째,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과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며, 셋째,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 결정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 갈등해결의 개념과 의의

갈등(conflict)은 생활이나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상호 의존성을 가진 둘이상의 당사자가 요구, 관심, 가치가 서로 모순되어 감정적 반작용이나 불일치를 표현하게 되고, 때로는 표출하는 상태이다(최해진, 2004).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이란 상호간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상황을 성공적이고 생산적이며 평화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Broadbear, 2000; Alexander, 2000)이라 할 수 있으며, 유익하든지 유해하든지 간에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나 스타일을 갈등해결유형(conflict resolution styles)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인간관계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특히 청소년기에 그러한 갈등의 양상은 더욱 두드러진다(Alexander, 2000). 대체로 청소년기의 갈등은 생물학적 성숙, 발달 심리적 특성, 자아정체성의 미확립으로 인한 과도한 집단 동일시 경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기의 갈등해결은 청소년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청소년 갈등해결은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고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청소년기에는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즉, 인간관계에서 갈등의 존재 여부 자체 보다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갈등상황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Inger(1991)에 따르면 갈등해결이란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서로 공감하는 협상점을 찾기 위한 건설적인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함양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능력, 상대방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차이를 이해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등이다.

청소년들은 갈등에 대처하는 데 있어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많으며, 갈등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과 능력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이수원·박광엽, 1992).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전문 갈등해결프로그램이나, 청소년 활동지도, 상담 등을 통하여 청소년 갈등을 스스로 생산적이며 발전적인 관계로 개선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청소년 갈등의 원인과 원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자원의 재배분, 권력, 사회적 구조 또는 제도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사이에서의 피할 수 없는 경쟁이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갈등의 원인을 이해한다면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갖게 된다(Mayer, 2000).

청소년 갈등의 주요대상은 일반적으로 부모, 교사, 친구이다. 구본용 등(1993)의 우리나라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들의 고민 중 20% 이상이 친구간의 인간관계갈등이었고, 8%는 친구에게 따돌림으로 인한 고민이었다.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문제를 고민하는 청소년도 15%에 달했다. 황정규(1990)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생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원천이 학업성적으로 인한 교사·부모와의 인간관계, 친구와의 인간관계로 나타났으며 이중 친구와의 인간관계가 성적보다 더 큰 갈등의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갈등의 원천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종환(1981)의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갈등실태에 대한 연구’에서는 청소년 갈등의 원천을 이성문제, 진로문제, 학교생활, 종교 및 인생문제로 제시하였다. 황정규(1986)의 ‘한국청소년의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업문제, 집안문제, 학비 및 용돈문제, 이성교제를 안병조(1984)의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의 갈등실태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학습활동, 진로 및 장래문제, 가족문제, 친구관계, 외모 및 건강문제, 경제문제, 이성교제, 종교문제를 갈등의 주요 원천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갈등원천을 ①학교성적이거나 진학문제, ② 성격차이, ③ 생활방식 차이, ④외모, 체력, 체격 등의 신체적인 차이, ⑤이성문제, ⑥가족문제, ⑦경제문제(경제적 격차, 돈관계, 돈문제 등), ⑧종교문제로 유형화하였다.

### 3.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

청소년들이 갈등을 처리하고 반응하는 고유의 방법이나 전략을 몇 가지의 패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갈등해결유형(conflict resolution styles)이라 한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패턴을 갈등해결유형, 갈등표출방식, 갈등해소방식으로 다양하게 명명하기도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갈등해결유형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Kilmann과 Thomas(1977), Thomas(1983)의 연구에서는 갈등해결유형을 강행(지배, 경쟁), 순응(비직면), 회피, 타협, 협력의 5가지로 범주화하였다. Sternberg와 Dobson(1987)은 대인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대인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연구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16가지 갈등해결유형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이것을 수동적 갈등격화, 수동적 갈등완화, 능동적 갈등격화, 능동적 갈등완화로 구분하였다. Crawford와 Bodine(1996)은 갈

등해결유형을 부드러운 유형(Soft), 딱딱한 유형(Hard), 원칙적 유형(Principled)의 3가지로 제시하였다. Alexander(2000)는 갈등해결유형을 공격유형(attack, anger), 협력유형(compromise), 회피유형(avoidance)의 3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에서는 최선남(1990), 신호식·이경주(2001)의 연구에서 Straus(1979)의 연구를 참고하여 의논행동, 언쟁행동, 폭력행동의 3가지 갈등해결 행동유형을 범주화 하였고, 나은아(1995)는 회피고립형, 양보복종형, 위협폭력형, 설명설득형, 환심보상형의 5가지 갈등해결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갈등해결유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인 상호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은 Kilmann과 Thomas(1977), Thomas(1983)의 협력과 협상, Sternberg와 Dobson(1987)의 능동적인 갈등완화방식, Crawford와 Bodine(1996)의 원칙적 유형(Principled), 최선남(1990), 신호식·이경주(2001)의 의논행동, 나은아(1995)의 설명설득형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협력, 타협유형, 능동적 갈등완화방식, 원칙적 유형, 의논행동, 설명설득형 등이 청소년 갈등 감소정도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 4. 청소년 갈등해결유형 결정요인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주로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에 대한 일반적 현황분석과 갈등해결프로그램의 효과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밝힌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leadership life skills이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연구결과가 공존하고 있다. 예컨대, Thompson(1999)은 갈등해결프로그램의 효과와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연구를 수행한 결과, 갈등해결프로그램의 질적수준,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그리고 국가적 또는 지역적인 갈등해결에 관한 큰 축제나 이벤트 등의 외부적 요소가 청소년과 부모의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etrone(1999)은 성별에 따른 갈등해결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의 갈등해결유형을 비교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Leadership life skills 이론가들은 청소년의 leadership life skills이 청소년의 문제해결유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Miller, 1976; Dormody & Seevers, 1995; Wingenbach, 1995 ; Morris, 1996; 최창욱, 2001). leadership life skills이란 “청소년들이 상호의존적인 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문제를 예견하고 방지하며, 정신적 건강, 사회적 역할, 경제적 부, 물질적 풍요를 얻는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Schinke & Gilchrist, 1984). 따라서, leadership life skills의 수준이 높을수록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Leadership life skills과 문제해결유형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갈등해결유형에 대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연구들이 있다. 예컨대, Weatherford와 Weatherford(1985)는 leadership life skills은 대인관계기술의 향상시킴으로써, 타인과의 상황적·개인적 장벽을 제거하고 사회적 공헌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청소년개발원(2004)은 미국과 한국의 갈등해결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기존중능력(자기 이해, 자기존중, 인권), 갈등이해능력(갈등의 본성/원인, 갈등해결유형 이해), 인간관계능력(다양성과 차이 이해), 의사소통능력(듣기, 표현력), 문제해결능력(협동적 문제해결방법), 의사결정능력(판단력, 진로목표, 진로계획)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leadership life skills의 하위영역인 커뮤니케이션기술(communication skills), 의사결정기술(decision-making skills), 인간관계기술(skills in getting along with others), 학습능력기술(learning skills), 조직관리기술(management skills), 자기이해기술(skills in understanding self), 그룹활동기술(skills in working with groups)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leadership life skills은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 Ⅲ. 조사대상과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표집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에 대한 영향요인을 구명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중·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집은 모집단에 대한 사전정보를 바탕으로 학교급과 성비를 고려하여 32개 중·고등학교에 비례표집(proportionate sampling) 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1,600부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1,186부(74.1%)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조사도구와 측정방법

##### 1) 청소년 갈등해결유형 조사도구

갈등해결유형 조사도구는 Alexander(2000)의 The Conflict Resolution Measure: Friends, Parents, Co-workers(CRM: FPC)을 사용하였다. 이 조사도구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타당도를 갖춘 조사도구를 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설문지를 수정·보완한 후 적용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 척도에 대한 요인타당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의 요인(factor)수가 확인되었고, 이 결과는 상당한 정도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Alexander(2000)의 연구에서는 5개의 요인수가 확인되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Rubenstein과 Feldman(1993)의 연구와 같이 3개의 요인수가 확인되었다.

각 요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심적인 개념과 선행연구의 유형을 참고하여 도출된 갈등해결유형 요인 I, II, III을 각각 협력유형, 공격유형, 회피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가 협력유형 .81,

공격유형 .81, 회피유형 .59로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청소년 갈등원천별 현황 조사도구

청소년의 갈등원천별 현황에 대한 조사도구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원천들을 추출하고 연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추가하여 8개 원천으로 재구성하였다. 8개 원천은 학교성적이나 진학문제, 서로의 성격차이, 서로의 생활방식차이, 신체적인 차이, 이성문제, 가족문제, 경제문제, 종교문제 등이며 각각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청소년 갈등해결유형에 대한 요인분석

구 인(construct)	갈등해결유형		
	I	II	III
그 친구와 함께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는다.	.653		
여러 가지 조언을 들으려고 노력한다.	.638		
갈등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생각한다.	.621		
뭔가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한다.	.586		
친구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한다.	.580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노력한다.	.566		
갈등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	.553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550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말한다.	.534		
갈등상황에서 배울점을 찾으려 노력한다.	.503		
갈등을 무마하려 노력한다.	.447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생각한다.	.425		
그 친구에게 화내고 그 자리를 벗어난다.		.642	
말이나 행동으로 그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612	
친구에게 비꼬는 투로 말한다.		.585	
그 친구에게 냉담한 태도를 취한다.		.578	
그 친구를 무시한다.		.577	
그 친구를 무시하는 친구들을 찾는다.		.571	
친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보복을 한다.		.540	
화가 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531	
친구에게 화를내거나 소리를 지른다.		.509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470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거나 다른 것을 친다.		.470	
그 갈등상황에 계속해서 집착한다.		.406	
그 친구에게 좀처럼 말을 하지 않는다.		.401	
그 갈등이 무사히 지나가길 희망하며 아무말 하지 않는다.			.614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회피하려 한다.			.584
조용히 마음속으로 화를 삭인다.			.557
내 주장을 포기한다.			.553
내 감정을 그 친구에게 좀처럼 말하지 않는다.			.528

주)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법, 회전방법은 Varimax법 사용

### 3) 청소년 leadership life skills 조사도구

청소년의 leadership life skills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Morris(1996), Seevers와 Dormody(1995), Wingenbach(1995) 등이 사용한 'Leadership Life Skills Scales' 30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eadership life skills의 하위영역으로 의사결정능력, 자기존중 및 인간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수준 등이 설정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청소년 leadership life skills 수준 요인분석

구 인(construct)	유형			
	I	II	III	IV
재치있는 일 처리	.741			
일처리 과정에서 융통성 발휘	.670			
실수를 잘 수습	.586			
주장이나 생각을 타인에게 명확히 설명	.581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분위기 잘 조성	.557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소유	.506			
감정을 잘 표현	.438			
친근한 성품		.648		
좋은 매너		.604		
타인에 호의적		.551		
타인을 신뢰하는 경향		.533		
타인과 화합 잘함		.509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소유		.501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함		.501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		.437		
목표설정을 잘함			.647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			.589	
어떤 지식이든 배울 자세가 되어 있음			.586	
내가 속한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잘 결정			.495	
책임있는 태도 소유			.487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처리			.464	
타인의 가치인정				.670
타인의 말 경청				.632
대안을 잘 고려함				.537
대안 선택을 잘함				.520
타인의 요구 잘 고려				.511
타인의 요구 잘 수용				.468

주)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법, 회전방법은 Varimax법 사용

청소년의 leadership life skills 수준에 대한 요인타당도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의 요인(factor)수가 확인되었고 이 결과는 상당한 정도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eadership life skills 수준 유형 I, II, III, IV는 각각 의사결정능력, 자기존중·인간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으로 명명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 계수가 문제해결능력 .80, 의사결정능력 .73, 의사소통능력 .75, 자기존중·인간관계능력 .77, leadership life skills 수준 .90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청소년의 개인적 배경

개인적 배경은 성별, 학교급, 학교성적, 가정경제수준으로 설정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설정된 연구문제에 따라 통계적 분석을 수행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갈등원천과 갈등해결유형의 실태분석을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갈등원천과 갈등해결유형의 관련성 분석을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과 관련변인과의 관계분석을 위하여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을 협력적 갈등해결유형, 회피적 갈등해결유형, 공격적 갈등해결유형의 세 범주로 재구성<sup>1)</sup>하여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분석을 하였다.

다항로짓은 종속변수의 여러 범주 중에서 한 범주를 기준범주로 정하고, 다른 범주를 기준범주와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종속변수의 결과가 기준범주에 비하여 다른 범주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Maddala, 1983). 예컨대,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갈등해결유형이기 때문에 특정 갈등해결유형 j에 속할 확률을 P(Y=j)라고 하면,

$$P(Y=j) = \frac{e^{\sum \beta_{jk} x_k}}{1 + \sum_{j=1}^{J-1} e^{\sum_{k=1}^K \beta_{jk} x_k}} \quad \text{①}$$

라고 표시된다.

또한, 기준범주 J에 포함될 확률은

1)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을 3개의 범주로 구성된 명목변수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갈등해결유형을 구분하였다. 첫째, 협력유형에서는 상위25%이지만, 회피유형과 공격유형에서는 하위 25%에 해당될 경우 협력적 갈등해결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회피유형에서는 상위 25%이지만, 협력유형과 공격유형에서는 하위 25%에 해당될 경우에는 회피적 갈등해결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공격유형에서는 상위25%이지만, 협력유형과 회피유형에서는 하위 25%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격적 갈등해결유형으로 분류하였다.

$$P(Y=j) = \frac{1}{1 + \sum_{j=1}^{J-1} e^{\sum_{k=1}^K \beta_{jk} x_k}} \quad \text{②}$$

이다(Liao, 1994). 따라서, J집단에 비해 j집단에 포함될 확률은 ①, ②의 식에서 두 식의 분모가 같기 때문에 정리하면

$$P(Y=j)/P(Y=J) = e^{\sum \beta_{jk} x_k}$$

으로 표시된다. 이 식을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log \left[ \frac{P(Y=j)}{P(Y=J)} \right] = \sum \beta_{jk} x_k \quad \text{③}$$

결과적으로, 다항로짓에서는 위의 식③에서 β값을 계수로 제시하게 된다. 다시말해 다항로짓의 분석결과는 회귀분석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β값은 ③식의 값이 되는 것이다. 이때, β값은 두 범주의 비교 값이 되기 때문에 범주의 수에 따라 값의 수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종속변수의 범주가 세 개인 경우에 β값은 두 종류로 나타나며, 범주가 네 개인 경우에 β값은 6종류로 나타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의 범주가 세 개인기 때문에 두 종류의 β값이 나타나며, 첫째 β는 제1 비교범주/기준범주, 둘째 β는 제2 비교범주/기준범주의 값이 된다(Greene, 1995).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청소년의 갈등원천과 갈등해결유형 현황

#### 1) 청소년의 갈등원천별 현황

친구와의 갈등원천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로의 성격차이가 평균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성적이나 진학 문제 2.99, ‘외모, 체력, 체격 등 신체적인 차이 2.8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3>참조). 따라서, 친구와의 갈등은

주로 서로의 성격차이나 학교성적, 진학문제, 신체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갈등 원천별 현황 분석

친구와의 갈등 원천	N	평균	표준편차
학교성적이나 진학 문제	1180	2.99	1.24
서로의 성격차이	1181	3.24	.95
서로의 생활방식 차이	1178	2.78	1.03
외모, 체력, 체격 등 신체적인 차이	1180	2.80	1.19
이성문제	1180	2.44	1.19
가족문제	1181	2.27	1.17
경제문제(경제적 격차, 돈문제 등)	1180	2.51	1.20
종교문제	1169	1.68	.99

## 2)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 현황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 <표 5>, <표 6>과 같았다. 친구와의 갈등해결유형에 있어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협력유형이 평균 3.3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회피유형 2.82, 공격유형 2.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3가지 유형 중 협력유형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었다. 갈등해결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력유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구인에 있어서 이론적 평균인 3.0을 상회하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M=3.70), '친구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한다'(M=3.56), '갈등해결을 위해 뭘 해야할 지를 생각한다'(M=3.43)의 문항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표 4> 친구와의 갈등해결유형 I : 협력유형

문 항	N	평균	표준편차
그 친구와 함께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는다.	1181	2.97	.96
여러 가지 조언을 들으려고 노력한다.	1180	3.18	1.00
갈등해결을 위해 뭘 해야 할 지 생각한다.	1180	3.43	.86
뭔가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한다.	1182	3.41	.94
친구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한다.	1184	3.56	.88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노력한다.	1183	3.37	1.05
갈등해결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	1181	3.07	1.04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181	3.70	.90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말한다.	1182	3.33	.97
갈등상황에서 배울점을 찾으려 노력한다.	1181	2.86	1.03
갈등을 무마하려 노력한다.	1183	3.37	.94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한다.	1182	3.36	.98
<b>계</b>	<b>1162</b>	<b>3.31</b>	<b>.55</b>

회피유형에 있어서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화를 삭인다’(M=3.34)가 이론적 평균치를 넘는 높은 값을 보였고, ‘갈등의 무사통과를 바라며 아무 말 하지 않는다’(M=2.84)가 다음을 차지하였다.

<표 5> 친구와의 갈등해결유형 II : 회피유형

문 항	N	평균	표준편차
갈등의 무사통과를 바라며 아무말 않는다.	1179	2.84	1.01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회피하려 한다.	1179	2.67	1.04
조용히 마음속으로 화를 삭인다.	1183	3.34	1.13
내 주장을 포기한다.	1183	2.30	.96
내 감정을 좀처럼 말하지 않는다.	1184	2.93	1.15
<b>계</b>	<b>1172</b>	<b>2.81</b>	<b>.65</b>

한편, 공격유형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이론적 평균치인 3.0을 밑돌았다. 공격유형의 문항들 중에서는 ‘그 친구에게 좀처럼 말을 하지 않는다’(M=2.91)와 ‘그 친구에게 냉담한 태도를 취한다’(M=2.81) 문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거나 다른 것을 친다’(M=1.92) 등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

다.

<표 6> 친구와의 갈등해결유형 III : 공격유형

문 항	N	평균	표준편차
그 친구에게 화내고 그 자리를 벗어난다.	1182	2.25	1.01
말과 행동으로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1182	2.58	1.05
친구에게 비꼬는 투로 말한다.	1183	2.56	1.04
그 친구에게 냉담한 태도를 취한다.	1183	2.81	1.09
그 친구를 무시한다.	1182	2.30	1.02
그 친구를 무시하는 친구들을 찾는다.	1182	2.19	.97
친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보복을 한다.	1181	2.15	1.02
화가 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1183	2.49	1.15
친구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른다.	1184	2.55	1.00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1183	2.58	1.03
화를내며 물건을 던지거나 다른 것을 친다.	1181	1.92	1.12
그 갈등상황에 계속해서 집착한다.	1183	2.65	1.08
그 친구에게 좀처럼 말을 하지 않는다.	1183	2.91	1.14
계	1168	2.45	.59

### 3) 갈등원천과 갈등해결유형의 상관관계

갈등원천과 갈등해결유형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대체로 원천별로 갈등의 빈도수가 높아질수록 공격적인 갈등해결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갈등원천 중 ‘서로의 성격차이’, ‘서로의 생활방식차이’ 등은 Guilford의 해석기준상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다른 원천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7> 친구와의 갈등원천과 갈등해결유형과의 상관관계

갈등원천	갈등해결유형	협력유형	공격유형	회피유형
학교성적이나 진학 문제		.012	.117**	.073*
서로의 성격차이		-.069*	.232**	.028
서로의 생활방식 차이		-.054	.224**	-.008
외모, 체력, 체격 등 신체적 차이		-.054	.185**	.098**
이성문제		-.069*	.164**	.065*
가족문제		-.025	.167**	.066*
경제문제(경제적격차, 돈문제 등)		-.079**	.193**	.104**
종교문제		-.074*	.146**	.039

주: \* p< .05 ; \*\* p<.01

## 2.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과 제 변인과의 관계분석

### 1) 성별 갈등해결유형에 대한 t-Test

성별 친구와의 갈등해결유형 수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았다. 협력유형에 있어서는 여자청소년 평균이 40.31로 남자청소년 39.01 보다 높았다. 그리고 회피유형수준에 있어서는 남자청소년 평균 14.42로 여자청소년 13.78 보다 높았다. 이 결과는 유의수준이 1%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였다. 공격유형수준에 있어서는 남녀간의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따라서 친구와의 갈등상황이 생겼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에서 여자청소년은 ‘협력유형’의 수준이 남자청소년은 ‘회피유형’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 성별 갈등해결유형에 대한 t-Test

갈등해결유형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협 력 유 형	남성	551	39.01	6.84	-3.360	.001
	여성	601	40.31	6.30		
공 격 유 형	남성	557	31.92	7.62	-.020	.984
	여성	601	31.93	7.70		
회 피 유 형	남성	557	14.42	3.04	3.391	.001
	여성	605	13.78	3.42		

## 2) 학교급별 갈등해결유형에 대한 ANOVA

학교급별 친구와의 갈등해결유형 수준에 대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ANOVA의 결과는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협력유형’과 ‘회피유형’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공격유형’에 있어서는 실업고 집단이 평균 33.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문고 31.74, 중학교 31.63의 순이었다. 이 결과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실업고 청소년들이 인문고나 중학교 청소년들보다 더욱 공격적인 유형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학교급별 갈등해결유형에 대한 ANOVA

갈등해결유형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도	LSD검증
협력유형	1)중학교	611	39.79	6.75	1.939	.144	n.s
	2)인문고	346	39.97	6.78			
	3)실업고	191	38.85	5.66			
	계	1148	39.69	6.59			
공격유형	1)중학교	615	31.63	7.92	3.534	.029	1)<3) 2)<3)
	2)인문고	345	31.74	7.43			
	3)실업고	193	33.26	7.13			
	계	1154	31.93	7.66			
회피유형	1)중학교	615	14.02	3.27	2.095	.124	n.s
	2)인문고	348	13.97	3.36			
	3)실업고	195	14.52	3.05			
	계	1158	14.09	3.27			

### 3) 학교성적별 갈등해결유형에 대한 ANOVA

학교성적별로 친구와의 갈등해결유형 수준에 대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ANOVA의 결과는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협력유형’에 있어서는 학교성적이 상위권인 집단이 평균 40.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위권 39.40, 하위권 39.05의 순이었다. 이 결과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회피유형’에 있어서는 하위권 집단이 평균 14.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위권 13.97, 상위권 13.75의 순이었다. 이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공격유형’에 있어서는 학교성적에 따른 유의차를 보이지 못했다. 이는 학교성적이 상위권인 집단의 갈등해결유형이 더욱 협력적이며, 학교성적이 하위권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회피적 갈등해결유형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학교성적별 갈등해결유형에 대한 ANOVA

갈등해결유형	집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값	유의도	LSD검증
협 력 유 형	1)하위권	307	39.05	6.13	4.036	.018	1)<3) 2)<3)
	2)중위권	382	39.40	6.45			
	3)상위권	454	40.34	6.99			
	계	1143	39.68	6.61			
공 격 유 형	1)하위권	310	31.86	7.73	.042	.959	n.s
	2)중위권	384	32.02	7.31			
	3)상위권	454	32.00	7.91			
	계	1148	31.97	7.66			
회 피 유 형	1)하위권	314	14.73	3.04	8.788	.000	1)>2) 1)>3)
	2)중위권	385	13.97	3.20			
	3)상위권	454	13.75	3.43			
	계	1153	14.09	3.27			

#### 4) 가정형편별 갈등해결유형에 대한 ANOVA

가정형편별로 친구와의 갈등해결유형의 수준에 대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ANOVA의 결과는 <표 11>과 같이 확인되었다. ‘회피유형’에 있어서는 가정형편이 하류층 집단이 평균 14.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류층 14.09, 상류층 13.53의 순이었다. 이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협력유형’과 ‘공격유형’에 있어서는 별다른 유의차를 보이지 못했다. 이는 가정형편이 하류층인 집단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해결유형이 상류층이난 중류층 집단에 비해 더욱 회피적임을 의미한다.

<표 11> 가정형편별 갈등해결유형에 대한 ANOVA

갈등해결유형	집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값	유의도	LSD검증
협력유형	1)하류층	141	38.72	6.79	1.998	.136	n.s
	2)중류층	792	39.74	6.31			
	3)상류층	216	40.12	7.40			
	계	1149	39.68	6.60			
공격유형	1)하류층	139	33.32	7.58	2.971	.052	1)>2)
	2)중류층	799	31.64	7.42			
	3)상류층	217	32.14	8.47			
	계	1155	31.94	7.66			
회피유형	1)하류층	139	14.86	2.98	7.141	.001	1)>2)>3)
	2)중류층	803	14.09	3.20			
	3)상류층	217	13.53	3.61			
	계	1159	14.08	3.27			

### 5) leadership life skills과 갈등해결유형의 상관관계

Leadership life skills과 친구에 대한 갈등해결유형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았다. leadership life skills은 협력유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으며, 공격유형 및 회피유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eadership life skills의 하위 구성요소별로 갈등해결유형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존중·인간관계능력 모두에서 협력적인 갈등해결유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공격유형과 회피유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협력유형에 있어 의사소통능력과 자기존중·인간관계능력은 Guilford의 해석기준에 따르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문제해결기술과 의사결정기술은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2> leadership life skills과 갈등해결유형의 상관관계

갈등해결성향	협력유형	공격유형	회피유형
leadership life skills	.330**	-.076*	-.106**
문제해결능력	.295*	-.036	-.363**
의사결정능력	.362**	-.087**	-.201**
의사소통능력	.434**	-.154**	-.073*
자기 존중·인간관계능력	.430**	-.226**	-.144**

주: \* p< .05 ; \*\* p<.01

### 3. 갈등해결유형 결정요인 분석결과

청소년들의 갈등해결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종합적인 영향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들의 갈등해결유형을 ‘협력적 갈등해결유형’, ‘회피적 갈등해결유형’, ‘공격적 갈등해결유형’의 세 범주로 재구성하여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분석을 하였다. 다항 로짓에서는 범주의 수에 따라 추정하는 계수의 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범주가 3개인 경우, 추정하는 계수는  $\frac{1\text{범주}}{3\text{범주}}$ ,  $\frac{2\text{범주}}{3\text{범주}}$  의 두 개다. 물론,  $\frac{1\text{범주}}{2\text{범주}}$  의 계수도 구해야 세 범주를 모두 비교할 수 있지만, 앞의 두 계수를 추정하면 세 번째 계수는 앞의 두 계수를 이용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1범주(‘0’)는 ‘협력적 갈등해결유형’, 2범주(‘1’)는 ‘회피적 갈등해결유형’, 3범주(‘2’)는 ‘공격적 갈등해결유형’으로 범주화하였으며, ‘공격적 갈등해결유형’을 기준범주로 하여 다항로짓 분석을 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우선, ‘공격적 갈등해결유형’과 ‘협력적 갈등해결유형’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leadership life skills로 나타났다. leadership life skills에서는 leadership life skills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적 갈등해결유형’보다는 ‘협력적 갈등해결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adership life skills이 높은 청소년들은 ‘공격적 갈등해결유형’보다는 ‘협력적 갈등해결유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성, 학교급,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은 청소년의 ‘공격적 갈등해결유형’과 ‘협력적 갈등해결유형’의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leadership life skills이 청소년의 ‘협력적 갈등해결유형’과 ‘공격적 갈등해결유형’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요인 즉, 성, 학교급,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은 청소년의 ‘협력적 갈등해결유형’과 ‘공격적 갈등해결유형’을 결정짓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공격적 갈등해결유형’과 ‘회피적 갈등해결유형’을 비교한 결과 성, 학교급,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 leadership life skills 수준 등 모든 변인들이 청소년의 ‘공격적 갈등해결유형’과 ‘회피적 갈등해결유형’의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변인들은 청소년의 ‘공격적 갈등해결유형’과 ‘회피적 갈등해결유형’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성, 학교급,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 등 개인적 특성변인은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 결정에 의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청소년의 leadership life skills은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 중 ‘공격적 유형’과 ‘협력적 유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격적 유형’과 ‘회피적 유형’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13>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에 대한 다항로짓의 분석결과

변	수	협력유형/공격유형		회피유형/공격유형	
		Beta	SE	Beta	SE
Intercept		-10.309 **	1.828	-.200	1.818
성별(reference=여자)		-.452	.346	.246	.406
학교급별(reference=실업고)					
중학교		.007	.563	.177	.595
인문고		.167	.551	-.498 가)	.635
학업성적별(reference=상위권)					
하위권		-.491	.462	.446	.458
중위권		-.127 나)	.395	.180	.506
가정경제수준(reference=상류층)					
하류층		-.272	.595	.681	.519
중류층		.555 다)	.402	.106	.752
Leadership life skills		.108 ** 라)	.017	.007	.018

주: \*  $p < .05$  ; \*\*  $p < .01$

## V. 결론 및 논의

청소년기는 갈등해결과 관련된 행동유형을 확립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확립된 갈등해결유형은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갈등원천과 갈등해결유형 실태를 분석하고,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청소년기에 바람직한 갈등해결유형 형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 및 이의 함의들을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서로의 성격차이와 학교성적, 진학문제, 신체적인 차이로 인해 친구와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갈등해결유형은 전반적으로 협력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회피유형과 공격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갈등원천과 갈등해결유형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갈등원천별 갈등발생 빈도는 협력유형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회피유형과 공격유형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친구간의 갈등발생 빈도는 협력유형을 감소시키고 회피유형과 공격유형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협력적 갈등해결성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동일한 문제로 인한 갈등발생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갈등관리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과 제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청소년은 회피유형이 여자청소년은 협력유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실업고 청소년들이 인문고나 중학교 청소년들보다 공격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성적별로는 상위권일수록 협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경제수준별로는 하류층인 청소년이 상류층이나 중류층에 비해 회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eadership life skills과 갈등해결유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leadership life skills은 협력유형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공격유형과 회피유형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협력적 갈등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 인문고나 중학교 보다는 실업계고 청소년, 학교성적이 낮은 청소년, 가정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leadership life skills과 관련된 능력들 즉,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의사소통능력, 인간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갈등해결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leadership life skills이 공격유형과 협력유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 학교급,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 등 개인적 특성변인은 갈등해결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 특성변인에 따라 협력적 갈등해결성향, 회피적 갈등해결성향, 공격적 갈등해결성향에 차이가 발생되긴 하지만,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갈등해결유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적 특성변인 보다는 leadership life

skills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에 바람직한 갈등해결유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leadership life skills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구본용 외(1994).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 개발연구.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종환(1981). 청년기에 있어서 갈등실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은아(1995). 부모의 가정교육태도와 청소년의 갈등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효식·이경주(2001). 청소년자녀의 부모와의 갈등과 갈등표출방식. 대한 가정학회지, 제39권 1호, pp. 29-38. 서울: 대한가정학회.
- 안병조(1984).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의 갈등실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원·박광엽(1992). 갈등관리훈련 프로그램,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활연구 10, pp. 85-112.
- 최선남(1990). 청소년의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유형과 갈등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창욱(2001).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해진(2004). 갈등의 구조와 전략. 서울: 두남.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갈등원천, 해결유형 및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황정규(1986). 청소년지도와 가정교육, 평생교육과 가정교육. 서울: 정민사.
- \_\_\_\_\_(1986). 한국 학생의 스트레스 특성과 형식, 서울사범대학교 논총.
- Alexander, K. L.(2000). *Prosocial behavior of adolescence in work and family life : empathy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with parents and peers*. doctoral dissertation(Ph. D). Ohio State University.

- Broadbear, B. C.(2000). *Evaluation of the second step curriculum for conflict resolution skills in preschool children from diverse parent household.* doctoral dissertation(Ph. D). Indiana University.
- Crawford, D. & Bodine, R.(1996).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 A Guide to Implementing Programs in Schools, Youth-Serving Organizations, and Community and Juvenile Justice Settings.*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U.S. Department of Education.
- Deen, M. Y.(2000). *Differences in the Solution-Oriented Conflict Style of Selected Groups of 4-H Youth Development Volunteer Leader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tion* 38(1). Retrived July 2, 2004, from <http://www.joe.org/joe/2000february/rb5.html>.
- Dormody, T. J., & Seevers, B. S.(1994). *Predicting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among FFA members in Arizona, Colorado, and New Mexico.*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35(2), 65-71.
- Greene, W. H.(1995), *Limdep 7.0 user's manual.* Econometric Software, Inc.
- Inger, M.(1991).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in schools.* ERIC clearinghouse on urban education. New York: U.S. Department of Education.
- Kilmann, R. H., & Thomas, K. W.(1977). *Developing a forced-choice measure of conflict-handling behavior: The "MODE" instrument.*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7, pp. 309-325.

- Maddala, G. S.(1983). Limited-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yer, B.(2000). The Dynamics of Conflict Resolution: A Practitioner's Guid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iller, R. A.(1976). *Leader/agent's guide: Leadership and life skills*. Stillwater: Oklahoma State University.
- Morris, J. C.(1996). *Self-perceived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development among Iowa 4-H member*. doctoral dissertation(Ph. D). Iowa State University.
- Petrone, L. M.(1999). Conflict resolution training in relation to gender. doctoral dissertation(Ph. D). Columbia University.
- Rubenstein, J. L. & Feldman, S. S.(1993). *Conflict resolution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ntecedents and adaptational correlat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 pp. 41-66.
- Schinke, P. A., & Gilchrist, L. D.(1984). Life skills counseling with adolescents.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 Scott, D.(2003). Social Competence. Program Outcomes for Youth. Retrived July 2, 2004, from [http://ag.arizona.edu/fcr/fs/nowq/ social\\_comp.html](http://ag.arizona.edu/fcr/fs/nowq/social_comp.html).
- Seevers, B. S., & Dormody, T. J.(1995).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 Perceptions of Senior 4-H Youth*.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33(4). Retrived July 12, 2004, from <http://www.joe.org/joe/1995august/rb1.html>.
- Sternberg, R. J., & Doboson, M. D.(1987). *Resolving interpersonal conflicts; An analysis of stylistic consist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No. 4, pp 794-882.

- Straus, M. 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pp. 75-88.
- Thomas, K. W.(1983)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In M. D. Dunnette(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Skokie, Ill.: Rand McNally.
- Thompson, N. A.(1999). *The impact of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on participating students and their families : a qualitative case study*. doctoral dissertation(Ph. D). Ohio state university.
- van Slyck, M., Stern, M., & Zak-Place, J.(1996). *Promoting optimal adolescent development through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training, and practice: An innovative approach for counseling psychologis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4, pp. 433-461.
- Weatherford, D., & Weatherford, C.(1985). A review of theory and research found in selected experiential education, life skills development and 4-H program impacts literature. Raleigh: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 Wingenbach, G. J.(1995). *Self-perceived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development among Iowa FFA member*. doctoral dissertation(Ph. D), Iowa State University.

## ABSTRACT

# A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Youth Conflict Resolution Styles(YCRS) with Friends

Choi, Chang-Wook\* · Kim, Jin-Ho\*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youth conflict resolution styles(compromise style, attact·anger style, avoidance style) preference. The objectives were 1) to investigate YCRS status, 2) to identify its relationship with independent variables(4 demographic variables and leadership life skills variable), 3)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YCRS preference, and 4) to draw implications for youth conflict resolution.

The dependent variable was consisted of 35 items of YCRS scale with friends. After factor analysis, the scale was consisted of 30 items(12 items on compromise style, 13 items on attact·anger style, and 5 items on avoidance style). The leadership life skills scale was consisted of 4 factors and 27 items.

Data were collected from 1,600 students of 32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After screening the data, 1,186 responses only were used in the analysis. The SPSS program for window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for this study. The statistical methods employed in this study were frequency,

---

\* KIYD

t-Test, ANOVA, LSD test for post-hoc interpretati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nomial Logit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Personality differences, school achievement grades, physical differences, and life style differences were major conflict origins.
2. The mean scores of YCRS were compromise style 3.31, attack·anger style 2.45, and avoidance style 2.81. Therefore youth had higher compromise propensity than attack·anger and avoidance in conflict resolution.
3. As a result of multinomial logit analysis, leadership life skills only had positive effects on YCRS. Therefore It is need to enhance leadership life skills' level of youth for leading youth to compromise style of conflict resolution.

**Key Words** : youth conflict, youth conflict resolution, youth conflict resolution styles, leadership life skills

투고일 : 11월 1일, 심사일 : 12월 9일, 심사완료일 : 12월 23일